

열린 글터

개성있는 목소리를 가진 동대인을 찾습니다. 독자여러분의 생각이 담긴 글, 사진, 만화를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문의는 (02)260-3491-2 (0561)770-2057 하이텔 (ID:2603491, press11)

“안채란 이사 퇴진, 당면 과제” 동국의 일원으로 문제의식 느껴

얼마전 영석고등학교 교장이자 우리 동국대학교의 이사직을 갖고 있는 안채란 이사의 문제점에 대한 여러 보도에 접하게 되었다. 도저히 교육자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행위를 교육자라는 말을 쓰고 하였다. 이는 동국의 한 일원으로 커다란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지금의 동국은 어떠한가. 학생들을 비롯한 동국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여러사람들이 동국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투쟁하였지만 지금의 재단은 이전과 전혀 다르지 않다. 오히려 동국의 진정한 발전을 바라는 요구들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에 있어서는 이러한 외침이 오히려 현실을 모르는 오만함으로 치부되고 있지는 않은가.

한나라의 미래를 보려면 학교를 가보라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옛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교육의 공인인 학교는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공간이자 우리를 삶의 한 공간임이 분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동국의 이사가 그것도 한 학교의 교장이라는 사람이 얼마안되는 교사의 월급을 중간에서 착복하고 교사들에게 인간으로서의 답을 수 없는 육체를 퍼붓거나 학부모로부터 육성비의 명목으로 거액을 강요한다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만드는 일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사람이 우리 동국의 재단이사라는 점은 우리학교의 재단이 얼마나 문제있는가를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사건은 단순히 안채란이라는 한 개인만의 문제로 보아서는 안될 것이다. 예전부터 우리는 국민학교 교육을 받을 때부터 우리의 부모님들이 담임선생님께 존경을 드러왔다. 그것을 마치 일종의 관행처럼 말이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당연한 현실로 관행으로 삼아온 우리의 교육 현장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떠한가. 이 사회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펼치고 어떻게하면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득을 잘 쓰고 줄을 잘 먹어서 잘 대접받아 볼까를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엄연한 현실이다. 교육이 미치는 효과는 이렇게 커다란 것이다. 지존사건이나 성수대교붕괴, 인천북

구청 사건 등과 이러한 문제가 이러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면 무리일까?

다행인것은 영석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실천에 적극나섰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선생님들이 직접 동국대학교와 여러 곳에 알려내고 더불어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다는 것이다. 안채란씨는 영석고등학교의 교장만이 아니다. 우리 학교의 이사이기도 하다. 선생님들이 나서서 어떻게든 주길 바라기보다는 우리의 문제이기도 한만큼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다. 영석고등학교나 동국대학교나 이 나라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교육의 현장이다. 그렇지만 교육의 현장에서는 안일한 사람이 교육의 현장에서 버티고 존재한다면 모든 국민의 이름으로 불어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아니 우리의 미래를 올바르게 개혁해 갈 수 있는 것이다.

이제 현실의 안주나 관행으로 여겨져온 인습은 과감히 탈피해야 할 것이다. 동국에서는 안채란이사의 퇴진을 시작으로 사회의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일에 나서야 하지 않을까?

지금의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박우영 (문과대 영문과)

동아리방 컴퓨터 도난사건 충격 지성의 장에서 있을수 없는 일

어떻게 이런일이... 지난 3월11일과 12일에 도저히 있을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었다.

대학은 지성의 장이자 배움의 터전에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신성해야 할 배움의 터에서 있을수 없는 도난 사건이 DUCO 동아리 방에서 일어났다. 3월10일(금)에 동아리방 꾸미기를 마치고 퇴근한 터라 11일(토)1시에 동아리방으로 향했다. 당시 동아리 사무실을 위해 현주컴퓨터로부터 486컴퓨터를 빌려왔는데 그 컴퓨터의 본체가 통째로 사라졌던 것이다.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날까지 이어졌다. 문 단속을 철저히 하였건만 또다시 문을 따고 들어와 작은 한해동안 애써서 구입한 소중함 486컴퓨터의 주요부품을 뜯어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다.

본인을 비롯한 동아리 임원진들은 이 믿을 수 없는 사건에 황당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교내수가 불거진 터라 본인의 명의로 부품을 뜯어간 컴퓨터 케이스를 경찰에 맡겨 지문채취를 하게 되었고,

이에 용의자로 보이는 사람의 지문이 채취되었다.

귀찮게 보조 자물쇠를 달고 여러 동아리에 이 일을 알렸지만 지성이 결여된 이에게는 이미 소용없는 일이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학우여러분중 한순간의 충동으로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이 있다면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 이제 얼마후면 지성의 주인을 알리게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최후의 지성이 다. 같은 학생신분의 사람을 범적으로 처리하고 싶지 않다. 즉시 DUCO 앞으로 소포를 보내주면 신분의 노출은 하지 않겠다.

최후의 지성을 믿으며, 끝으로 이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사건이 없기를 바란다.

박동현 (자연대 전자계산학과)

지나호 동대신문을 읽고

1면 사진 해명필요

지나호(제1169호) 동대신문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보였다. 몇가지 지적해 보겠다. 첫째, 신문발행이 하루 늦었는데 이는 동대학우들과의 잠정적인 약속을 지키지 못한것 같아 아쉽다.

둘째 1면 머릿기사에 실린 사진에 글씨가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지만 진실은 밝히는 것이 신문의 생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해명이 있길 바란다.

셋째, 1면에 안묘이사 영석고 파행운영기사가 실렸는데 제목에는 안묘이사라고 표기했는데 기사를 읽다보면 안채란이사라고 정확히 나와있다. 기사에서 밝힌 이름을 굳이 제목에서 검출 필요가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6면의 우리의 대학 문화회기 기사에 많은 공감을 한다. 하지만, 대학 슬문화에 대한 지적이 없어 아쉬웠다. 요즘 학기 초라 술자리가 많고 평일저녁에도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학생들이 많이 같은 학생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이에대한 지적이 있었으면 한다.

이런 신문은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학우들의 말에 귀가 기울

고 학우들의 비평에 부응하는 동대신문이 되길 바란다.

김정식 (공과대 산업공학과·본사모니터)

불동과 심층취재요구

지나호(1169호) 동대신문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경주보도면의 불교아동화와 관련된 기사 사진 하나를 대체되었다는 것이다. 동두 다음으로 학교를 떠돌아다니는 학우들에게 알려내기에 좋은 사진이었었다. 노천강당 관련 기사도 '심층'이라 하기에는 내용이 빈약하다. 단지 등투등의 사안에 밀려 관심 밖이던 것이 관심 유망의 홍보 차원에 그쳤다고 본다.

6면 문화면은 사진의 비중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 두개의 사진이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알 수가 없다. 과거 90년대 이전 학번과 90년대 학번의 놀이문화와 비교하는 내용이거나 타대학과 우리 학교를 비교하는 내용이 담긴 사진이었다면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다음호 동대신문은 좀더 알찬 내용의 기사와 학우들의 보장을 기대해 본다.

이혜원 (인문대 철학과)

‘인간의 상품화’ 광고 풍토 인간성 회복에 역행 인식해야

‘멋진’ ‘임지’ ‘않는다’ ‘뽀아진다’ 라는 문구와 이 문구에 어울릴 만큼의 과감한 행동표현이 우리의 시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얼마전 또 대학교수가 조사한 광고여성모델의 이미지에 대한 자료에 의하면 ‘광고속에서의 여성모델의 역할은 단지 몸매과시일 뿐이다’란 의견이 전체 조사대상에서 60퍼센트를 차지 했었다.

오늘날, 수조건의 화려한 예술을 자랑하는 광고.

필수 있는 소비자에게 좀더 많은 자극을 가해 상품이 잘 팔리는 것에 광고의 완성도는 결정되어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쯤 짚어야 할 문제점이 바로 이 완성도의 기준이 무엇이라는 것이다.

한 광고의 완성도는 그 첫번째 조건이 상업성이다.

여러한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상업적인 성공이 광고의 우수성을 말하게 된다

이러한 풍토에서 인간의 상품화를 수단으로 하는 광고의 형태가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고 있다.

인간이 상품을 광고하는 것인 상품성이 인간을 파는 것인 좀처럼 감이 잡히지 않는 광고의 현재 모습에 옳고 그름을 말하기란 불가능이란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이다.

제작의도에 비판을 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예술이란 무형의 양세워 버리는 현 광고의 풍토.

사람이 아닌 광고가 있는 것이 지 결코 광고가 있기에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 알기를 만들기 쉬운 장난감인식하는 요즘 세대의 인식에 방송매체까지 한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 자신들이 의치고 있는 ‘인간성 회복’에 얼마나 역행을 하고 있는지를 인지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김재현 (상경대 국제경제학과)

“아직 한번도 강의를 듣지 못했다” ‘중국어’ 강좌, 교수미정으로 휴강

고등학교때 제2외국어로 중국어를 배웠던 나는 1학년때 영역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외국어를 한문으로 들어야 했다.

한문과목을 수강했던 학생들 중엔 나처럼 고등학교때 배웠던 외국어가 없어 불가피하게 선택해야 했던 경우가 꽤 있었다.

올해 다시 수강신청을 하는데 교양으로 초급중국어를 신청해야 했다. 다들어서 선택했지만, 2학년이 되면 다시는 안 들어간 전공과목과 시간이 겹쳐도 다음으로 미루어야 하는 아쉬움을 느껴야 했다.

그러던 중 마침 올해 신설된 야간 학과에 중어중문학과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강의계획서에서 ‘중국어’ 어음을 찾아 신청을 했다.

전공기초과목이니 주간의 교양과목보다는 심도있고 자세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3월이 며칠 안남은 지금까지도 나는 강의를 한번도 듣지 못했다.

원래 교수는 미정이었다는 것을

강의계획서에서 보아서 알고 있었지만, 새학기가 시작되기까지 담당교수가 없이 세시간이나 휴강이 되고 강의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은 기가 찬일이 아닌가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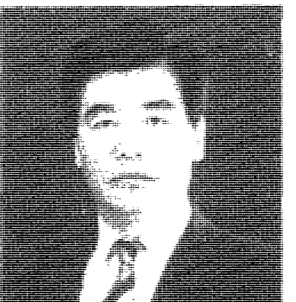
등록금은 15% 인상됐고 학교측에선 나름대로 타당하게 인상의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다. 2층까지 약취가 올라오는 명진관의 지하화장실을 이전 그만 이용할 수 있을까? 그런것들을 둘째로 하고라도, 강의실이나 모자라고 전공교수 채용의 기본적인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것이 학업에 정진하길 학생들에게 바란다고 하는 학교측의 억지 부여로는 들리지 않았다.

학과 통제합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신설학과와 문제처럼 무조건 해놓고 보자는 식이 아닌 대안있고 최대한의 합의와 해결점을 모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김경선 (문과대 국민리학과)

동/문/칼/럼

모교발전을 기대하며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으며, 필자는 크게 느끼기가 있어 이를 꼭 후배 재학생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어 이 글을 쓴다.

모교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교직원들의 노력과 재단 당국의 전폭적인 재정지원, 그리고 동문들간의 결속을 위한 동창회의 노력이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 나가야 한다는 물론 재학생 여러분들의 학교사랑정신이 가장 필요하다는 점이다.

문민정부가 출범하면서 오랫동안 민주화투쟁에 앞장서온 선배님께서도 모교를 빛내야 하고, 또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시어 일선의 제3패스 건설계획을 지원하고, 동창회 장학금 기부를 위한 노력등을 활발히 전개중이며, 학교도 최근 총장님이 새로 선출되고 진용을 구축하신 바 있어 우리 동문들은 모교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다.

후배 재학생 여러분! 이러한 때 모교의 발전에 발맞추어 나가시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학교사랑정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몇년후 대학별 평가결과가 다시 지상에 보도되었을 때, 자랑스러울 수 있고 더이상 운동경기에 서 1승8패의 부끄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재학생 여러분의 모두가 열심히 자기발전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으며 이것이 곧 학교사랑정신이 됨을 믿고 기대합니다.

필자의 늦은 밤을 뒤흔 밝히는 도서관에서 후배 여러분들이 학문에 정진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바이다.

박동열 (국제정 행정사사무소·행정77졸)

동/약/광/장

목 먹 골

- 제주産 요정스님 선학과 편입을 축하한다. -현목
- 은아야 생일을 축하해 (18일) 청춘사업이 잘 되길 바라 -독어독문학과 해연
- 진신통계 박정균, 혜정후나, 선우 생일 축하해요.
- 그리고...
 - 바람소리 7들을 환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고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나는 기쁨을 나누시다. -바람소리 일동
 - 봄, 임서진 준비하시느라 모두 모두 수고하셨어요. 더욱더 열심히 사세요. -93동국서도회 회원
 - 장·외 국회 갔던 날, 철거민의 아픔이 넘쳐났다. 이 무슨 아이러니인가? -정의 94
 - 기계공학과 학생회의 무궁한 발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범
 - 대림정보통신이 4세대언어, 다운사이징, BPR 등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보처리관련 최신 기술 설명회를 연다. 일시:3월25일(토) 9시30분 장소:대림정보통신 본사 12층(광화문 종로구청옆) 참가자 전원에게 기념품과 경품 지급한다. -동국회 16기들

은 방 골

- 축하합니다
 - 블로그문화의 힘찬 전진, 그 출발식을 축하합니다. -물·동·의珍
 - 재철선배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요. 항상 행복하세요. -관·경·의 은은한女子가
 - 해진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빠
 - 늦었지만, 학군35기 후배들의 입단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새로운 신 1년차 환원군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군 34기일동
 - 시립교직원직업위원회 O·B·포진 인지참정 진짜루 축하해요. -15기 편직위원일동
 - 동국졸업전시회를 축하드리고, 선배님을 언제나 행복하세요. -동국회 16기들

수고하셨습니다

- 총대집행부 여러분, 대의원 등 록 받으시느라 수고했요. -Boss
- 일주일동안 신인성 사무모집으로 수고 많이 했다. 14기들이! 정말로 사랑한다. -동국레오 13기
- 제12대 총학 집행부님들 수고하 시구요. 등투의 완전한 승리를 쟁취 하십시오. -92대모뽀

알립니다

- 동대부고, 명성여고가 동문회를 금요일날 합시다. 꼭 참석하십시오.
- 팔팔 날리는 미필·남강 동문회가 24일 성대히 열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모여서 갈비를 뜯어주세요. -동문회장
- 명덕고 95신인성및 재학생, 복학생 얼굴한번 봅시다. -92 어느동문
- 95년은 조국통일 원년입니다. 새내기 여러분과 함께 민족의 영원한 통일을 위해 힘차게 살아가겠습니다. -제37대 동국동학회
- 사범대에서 거역이 큰 지갑을 고스란히 찾아 돌려 주신 사범대 체·교과 R.O.T.C 1년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범대 여학우

축하합니다

- 혜승이와 재우이의 20번째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요! 장미20송이+ 향수+? (뭔가) 다 받았을까? -예쁜 동기가
- 現,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많이 느끼고 많이 생각하길 바란다. -元
- 동그라미 25기 신인전을 축하합니다. 열심히 하세요... -23기 일동
- 박경준-전창근 선배님의 교수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불교학성의 후배일동
- 산공90 이상, 여한구 복학을 축하한다 앞으로는 뜻깊은 (학)교수생활 되길바다. -수
- 응생 95서진이 20일 생일 축하합니다. 와 Happy Birthday to you -응생 95일동
- 경향행정학과 92학년 김진국의 23번째 생일을 무지하게 축하합니다. -백상 16th

그리고...

- 23일 DUCO신입생 환영회장 정기총회가 있는 날이래요. 많이 오세요. 그리고 뽀뽀 오세요. -DUCO
- 23일 5시에 신입생 환영회 합니다. 새내기 and 한내기 모두모두 오세요. -마음소리
- 28일 솔메리아 신입생 환영공연! 많이 와 주시소 녹야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 학생과의 한마디 말도없이 등록금인상 15%. 그런데 학생의견 수렴없이 학복위는 식당밥값 2%인상 이제 우리는 눈팔고 물먹어서 학교 다니란 말인가 -농사꾼의 아들
- 학교다니기가 무서워요. 밥값 20만원인상, 등록금 20만원인상, 그리고 이번에는 200x60(아침·점심·식사)=1만2천원 1만2천원x8(월)=9만6천원 학생복지문제 책임지고 물가조절해야 할 그곳에서 물가를 부추기는 구나! 이제 우리는 누굴 믿고 싶지. -동국 1만학우를 사랑하는 학우가

정보화사회와 삶의 질

“사회 시스템 어떻게 이용하느냐” 관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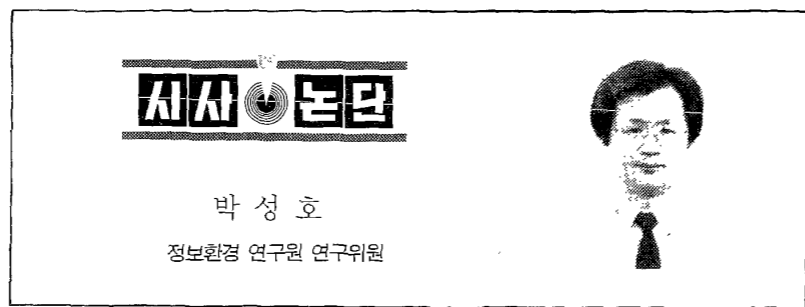
최근에 모일간 신문들 보나 신세대들의 직업관이 급속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생존을 위해 일거리를 찾아 헤매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신세대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자유분방하고 열매이지 않는 직업을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회의 정보화나 정보통신기술의 눈부신 발전과 무관한 것 같지는 않다.

어떻든 역사학자들이 지적하듯이 환경의 변화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가치관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의 등장을 가져 올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 구축되는 정보사회에서 사람들은 기존의 조직이나 기계적인 업무의 노예화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삶



박성호 정보환경 연구원 연구위원

을 되찾고 또 자신의 삶에 보다 큰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고자 한다.

사실 정보사회란 말은 우리 사회에서 이미 손때가 묻은 용어이지만 이것을 좀더 정확히 정의하면 “정보통신 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정보의 사회, 경제적 가치가 높게 부여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사회도 웬만큼 먹고 살기에 풍족한 사회가 되었다. 이제는 양적 증가보다는 질적 성장이 있는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인간은 뿔안으로 살 수는 없다. 삶에 의미가 주어지고 삶에 가치가 주어져야 한다. 삶에 의미와 가치를 부여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 바로 삶의 질에 대한 개념인 것이다.

삶의 질이란 용어는 철학적 측면에서 주로 정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삶이란 하나의 성과나 기록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삶의 질을 말할 때 삶의 물질적 질을 암시할 때도 있고 삶의 정신적 질을 의미할 때도 있다.

결국 삶의 질의 의미는 삶의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 질을 모두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엔(UN)인간개발보고서도 국민의 삶의 질의 수준을 정할 때 인간의 수명과 경제적 능력 그리고 교육수준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의 창조물인 정보통신을 떠나서 새로운 문화의 창조는 불가능해져 가고 있다.

어떻든 미국을 비롯한 선진 각국들은 정보고속도로나 멀티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정보통신 사회를 구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천문학적 비용을 투입하고 있다.

보다 많은 자유와 창의성을 허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비판론자들은 산업사회가 인간을 정보단말기로 만들고 인간을 기계의 노예로 전락시켰듯이 정보화도 인간을 정보단말기로 만들고 인간성을 말살하는 보다 통제된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칼도 자신의 아이의 재산을 노리는 무서운 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는 사실이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칼도 자신의 아이의 재산을 노리는 무서운 흥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은 최근의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아는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말해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사회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것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일상적인 것들의 질적 향상을 의미하고 있다.

프랑스의 한 시인이 말했듯이 삶이란 바로 너무 일상적인 것에 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적 환경의 질적 향상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의 질은 사회의 정보화와 함께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신설학과 문제점을 진단한다

학생회실·실습실·전임교수 부재

학생위한 행정 이뤄져야

지난해 본교는 전산통계학과, 반도체학과, 북한학과를 신설한데 이어 올해도 중어중문학과, 신문방송학과, 광고학과를 신설 1백50명을 증원했다.

그러나 작년의 시행착오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역시 작년과 별다른 없는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다.

가장 크게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은 공간이다. 그리고 가장 당면한 문제이기도 하다.

현재 이 세 신설학과는 학회실이 없다. 야간강과 총학생회(이하 야총)실을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요즘 야총은 신설학과 학생들로 항상

인산인해를 이룬다.

이에 대해 신설과의 한 학우는 “학교측이 이해가 안간다. 학과를 신설하면서 어떻게 과학회실도 없을 수가 있느냐”며 격분해 한다.

신문방송학과와 경우 학회실은 물론 전공 수업에 필요한 실험실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세개의 신설학과는 전임 교수도 없다.

중어중문학과와 경우 전공기초 과목인 중국어 연습1을 2주동안 수업 받지못하다가 사학과 이길용 교수가 유학시절 중국어를 부전공했다는 이유로 강의의 맡고 있다.

과, 야총 정·부학생회장으로 이뤄진 광고, 중문, 신방 학생자치공간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민수·경제3)를 발족했고 오늘(22일) 선포식을 가진다.

또 지난 17일 신설학과에 대한 학교당국의 입장 및 이후 일정을 묻는 질의서를 학교측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학교측의 태도는 의외로 느긋하다. 전공수업이 내년부터 시작되는데 교수도 그때까지 임용하면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당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학회실 문제도 이번 학기내에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문방송학과와 한 여학우는 “지금 학교측의 잘못을 따질 때가 아니다. 당면할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며 “우리는 학교측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다”고 말한다.

이 여학생의 말처럼 학교의 잘잘못을 따질 때는 지났다. 학교측은 대화를 통해 당면한 여러 문제들을

풀어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학교 당국의 무원칙한 학사행정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님을 학교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주캠퍼스는 95년 입시요강에 3개학과(국악과, 사회체육학과, 국제관계학과)를 더 신설했다.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주캠퍼스 3개학과가 신설됨에 따라 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그럼 현재 신설학과의 상황을 파악해 봄으로써 신입생의 어려움을 이야기 해 보고자 한다.

첫째 국악과의 경우 대규모의 실습실이 필요할만큼 전공이 세부화 되어있지만 공간이 없어 지금까지 연습을 중단하고 있다.

실습 공간을 완공할 때까지 원효관 옥상에 기건물을 세울 계획이지만 실습 전용건물을 지을 장소와 완공시기가 미확정된 상태에서 불법인 기건물을 계속 사용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다. 국악과 신설에 실습실은 필수라는 사실을 학교측은 불

랐을리가 있을까? 둘째, 사회체육학과와 경우 과이름에 걸맞게 체육관에서 강의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체육관 증축공사로 실기와 교양과목을 제외한 수업을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받고 있다.

공사가 끝나는 5월말까지 동지않은 기러기 마냥 도서관에서 수업을 받아야 하니, 좀더 빨리 공사를 시작할 수는 없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국제관계학과와 경우 정원 40명을 수용하기에는 협소한 강의실과 학회실도 배정받지 못해 40명의 인원이 모일만한 장소가 없어 불만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렇듯 3개 신설학과 모두 기본적인 공간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97년 대학평가인정제를 대비해 96년까지 교수 추가채용과 공간문제 등 더 많은 지원이 있을거라고 학교측은 밝혔다.

형식적인 대응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학생들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부)

사설

학과조정, 과 자율성 존중해야

학과통합 쪽, 학과조정에 관한 논의가 어느정도 진행되는가 싶더니 교수·학생 모두 어떠한 방향의 결과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듯하다.

현재의 학과는 학문의 발전을 위해 만들어졌다보다 국가의 대학원통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과를 세분화하여 학생정원을 늘리고자 했던 것이다.

학과조정, 과 자율성 존중해야. 학과조정의 장점은 첫째, 다양한 교육과정에서 적성과 능력에 맞는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다음으로 폐쇄적 전문화에 따른 지적고립을 극복함으로써 신속성있는 인력수요의 변동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본교는 학과조정에 있어 몇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첫째 우리대학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과는 그 특성을 살리고, 학문구조상 중복될 수 있고 같은 뿌리에서 나온 과를 통합하여 과 구성원의 반발을 무시한 강제적 통합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런 ‘학과통합’으로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전국대학으로 내려보내면서 차등적인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교육부의 구태의연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식의 책임회피와 일관적 잣대에서 벗어나 좀더 대학에게 권한을 맡기고 자율성을 존중할 수는 없는가.

이제부터 학과조정에 관한 논의가 구성원간에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당국 또한 과의 자율적 결정을 유도해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추진해가야 할 것이다. 학교발전과 동공을 특성화 할 기회이다.

중국만평

이영일



세계로 눈을 돌립시다. ② - 하버드대학



제2대 존 아담스 독립운동을 승리로 이끌고 초기 미국을 건설



제6대 존 퀸시 아담스 획기적인 외교정책의 기반이 된 민로 독트린을 제창



제19대 루퍼드 헤이스 남북전쟁 이후의 분열과 혼란을 수습



제26대 테오도어 루스벨트 노동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분쟁을 조정할 노벨평화상 수상자



제32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뉴딜정책으로 대공황을 타개하고 2차세계대전을 연한국의 승리로 이끈



제35대 존 F 케네디 뉴프론티어 정신으로 미국인에게 용기와 희망을 줌

대통령의 산실 하버드대학- 실천하는 지성이 오늘의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한 대학이 한 명도 배출하기 힘들다는 대통령을 6명이나 길러낸 하버드대학교 지성의 연마는 물론 사회에 대한 봉사과 책임감, 그리고 강인한 체력까지 갖추도록 한 하버드 대학의 전인교육이 미국을 세계의 리더로 이끈 힘이 되었습니다.

공보처

세계화는 나부터

◇고승열전 10권 완간한 윤청광 동문을 만나

“기록으로 안남기면 전설로 화한다”

“중국어학교에 들어간 것이 큰 행운이었다. 불교를 접하고 가르침을 받은 건 인생에 있어서 보너스”라며 자랑스럽다는 듯 웃어보이는 증경 출판인 윤청광 동문.



◇윤청광동문은 큰 스님들의 일대기를 일화 중심으로 정리한 '고승열전 10권'을 출판했다.

최근 그가 한국근세불교사에 한 획을 그은 큰스님들의 일대기를 일화 중심으로 쉽고 재미있게 소설로 정리한 고승열전 열권을 완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기록으로 남기지 않으면 그들은 전설속의 인물로 화하고 만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그분들의 생애를 다룬 것이 거의 없어 서둘러 집필하게 됐다”며 집필동기를 밝히는 그의 모습엔 불교에 대한 열정이 서려있었다.

예를들어 ‘산다는 건 뭐고 죽는 게 뭐냐’는 질문에 큰 스님은 ‘生也一浮屠 死也一浮屠’이라고 답했다.

이들 윤동문은 “한복을 태어남은 한 조각 뜬구를 생겨남이요 한복을 쓰러짐은 뜬구를 사러짐이라”고 답하면 된다며 일침한다.

지난 90년 불교방송의 고승열전 프로그램 원고집필로 관심을 갖게되어 추진하던 중 흥미로운 일화뿐 아니라 평범한 삶속에서도 삶의 지표로 삼을 만한 분들이 많아 혼자 알기에는 너무 아까운 큰스님들의 생애를 여러사람에게 알리

고자 했다며 윤동문은 일화를 직접 예 들기에 바빴다.

자신은 아침에 죽과 점심공양 두끼로 때우면서 시주금은 모두 품상으로 주며 빈민구제사업을 펼치고 ‘산승일어’를 실천토록 제자를 가르친 민공스님, 외대 졸업을 앞두고 백용성 스님의 ‘눈에 보이는 병을 고치는게 의사이고 마음의 병을 고치는 부처님이 가장 큰 의사’라는 법문을 들은 뒤 출가하여 고승이던 동산스님, 왜정시대 판사의 직위를 얻었는데 몇장수로 변하여 팔도를 돌아다니다가 깨달음을 얻기위해 스님이 되신

효봉스님의 일화등을 늘어놓으며 이야기를 멈출기세가 없는 듯 했다.

방송작가로 불교방송에서 재직중이던 법정스님이 제창한 ‘맑고 향기롭게 살아가기 운동’본부장으로 있는 그는 지난 92년 청담스님의 ‘마음에 타는 불무엇으로 고려는고’를 추천으로 효봉, 단암, 동산, 금오, 만공, 전강, 고암, 경봉스님에 이어 마지막편인 용성스님의 ‘작은 숲까지 나라장승이 되나니’까지를 엮으면서 단편적인 기록이었던 근세 불교사를 수놓은 큰스님의 행적을 정리했다.

근3년에 걸쳐 완간된 고승열전은 꾸준한 좋은반응을 보이며 상승중이라 실 글방갈인 윤동문은 최근에는 원효, 사명, 의상, 지눌 국사들의 역대 고승들의 열전을 집필중이다.

선승(참선하는 스님)들의 자료수집이 너무 힘들어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는 윤동문은 발굴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다고 포부를 밝히며 후배들에게 한마디도 잊지 않는다.

“불교가 무엇인가를 알고 졸업하기를 바란다”며, (양수정 기자)

‘고구려어의 연구’ 학술발표회 조록

고구려말

한자만든 부족말과 깊은 관계 일본어의 많은 어휘 모태

‘고구려 특별대전’이 현재 경북공내 민속박물관에서 개최되고 있어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신용태(일문학)교수는 “머지않아 중국도 소련처럼 민족에 따라 나누어질 것”이라고 말해 지금 우리 민족이 많이 살고 있는 만주, 연변등지에 대한 우리의 지대한 관심이 요구됨을 주장한다.



이에 고구려연구소(소장=서길수·서경대교수)는 ‘고구려어의 연구’를 주제로한 학술발표회를 지난 18일 덕성여대 평생교육원에서 개최했다.

‘갑골문, 일본어등의 연계를 중심으로 한 고구려어의 연구’에 대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본교 일본학연구소 소장인 신용태교수가 강연을, 홍남대 국문과 교수인 고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 발표회의 주된 핵심은 “고구려말은 한자를 만든 부족들의 말과 깊은 관계가 있고 일본어의 많은 어휘의 모태가 고구려말 계통인”을 밝히고자 함이다. 덧붙여 고구려인의 선조, 즉 부여나 더거슬러 올라가 발해인 일대에 살았던 고구려인의 선조들은 기원전 1천5백년에서 2천년전부터 한자의 원조가 되는 그림문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연구방법은 주로 삼국사기지리지 기재 지명명, 그밖의 지리지, 지명을 분석하며 외국자료로는 갑골문을 비롯하여 아아(假借) 방언, 역명등 고한어 자료, 중국정사 조사전, 그리고 일본 고지명, 고대어 등의 분석을 통하여 고구려어와 연관되는 말을 찾아내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고구려어의 위상을 확립하고자 한다.

이에앞서 신용태교수는 여기서 고구려어라고는 했지만 고구려, 백제, 부여가 모두 한 계통임을 말하고 고구려나라 자체에 한정된 것이 아닌 이를 모두 포괄하는 것임을 전제했다.

삼국사기 37권을 보면 ‘알록이북타득삼, 혈성, 본갑골(曷羅以北打得城三, 大城, 本甲悠)’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여기서 는 혈(穴)=갑(甲)이 서로 대응을 이루고 있고 혈(穴)을 고구려말로 갑(甲)이나 갑비(甲比)라고 말한 것이 확인된다. 일본지명에 오늘날의 산리현의 고지명인 갑비(甲比)라는 말이 있고 갑골(曷骨)을 아마가히(阿麻加比), 안간(眼間)을 마야가히(まやがひ)라고 한다. 그러면 이 ‘가간’라는 말은 ‘골짜기’라든가 어떤 물체의 ‘사’를 뜻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중국고대의 금문(주대의 금석문)에서 혈(曷, Kap)이라는 한자가 보이는데 이 글자는 ‘대인’이 소인사이에 끼여있는 내용을 나타낸 회의문자이다. 신라때 음력 팔월십오일을 ‘가비(嘉非)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중간’임을 뜻한다. 그리고보면 배음은 월중간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고구려어의 ‘갑’이라는 말과 한자를 창제한 민족의 말인 ‘혈(曷)’이라는 말과 일본어의 ‘가간’라는

말이 서로 연계성을 가진 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고구려가 한반도에 남하하기 이전에는 혈(穴), 골짜기를 ‘갑(甲)’이라 일컬었고, 남하이후 이것이 이음절화해서 ‘갑비(甲比)’라고 일컫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신용태교수가 강조했듯이 수사문제는 앞으로 치밀하게 연구해야할 과제이다. 신라때 개장된 삼강현(三綱縣)이라는 지명은 본래 고구려말 삼현현(三峴縣)이라고 불렀다. 이를 다른말로 말파해(德波谷)라고 부르기도 했다. ‘삼(三)=밀(密)’의 대응은 ‘밀(密)’자가 한국 한자음으로는 ‘밀’로 있지만 중국 한자음으로는 ‘미’, 일본어에서는 ‘미’로 읽는다. 일본에서 수사 ‘삼’은 ‘미’로 읽는 것과 대응시키면 그대로 들어맞는다. 고구려어의 수사 ‘삼(三)=밀(密)’과 일본어의 수사 ‘미’가 그대로 일치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본 문화의 뿌리를 형성한 것은 고구려계 문화라는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이며 고구려계 문화는 더 거슬러올라가면 부여계일수도, 발해인 일대의 고(古)아시아족 문화일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밝히는 것이 우리의 과제요 목표일 것이다.

다음으로 삼혈(三血)자는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림’을 나타내는 글자이다. 따라서 ‘족드림’을 나타내며 아침단(旦)자는 ‘해가지평선위에 올라오며 공중에 족 드림’이라는 모양이다. 그러므로 든(頓)을 비롯한 이 세글자는 ‘족드림’이라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서 공통성을 지닌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산골짜기의 모양이 바로 ‘산과 산사이에 족 드림’이라는 모양이다. 고구려인은 이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돈(頓), ‘탄(呑), ‘단(旦)’자를 쓴 것이다. 결국 고구려인의 선조들이 한자의 원조가 되는 그림문자를 사용한 사실을 이 지명들은 입증해 주고 있다.

고구려어에 관한 연구는 1910년대 초만,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연구하기 시작하여 8·15후에는 국어학자들이 여기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그다지 큰 진전은 없었다고 한다. 고구려어는 한자를 만든 부족들의 말과 깊은 관계가 있으며 또 일본어와 가장 가까운 언어이다. 일본어의 많은 어휘의 모태가 고구려어 계통일 것이라고 믿으며 일본문화의 형성하는데 써를 뿌린 고구려문화의 연구한다는것은 우리의 크나큰 과제이다. (김소영기자)

과학에세이

통신 이모저모

NOS, 네트워크상 모든것 제어라는 시스템 전화기만으로 통신을 하려면(?)

이번호부터 ‘과학에세이’를 격주컬럼으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원진자)

컴퓨터 통신하면 hitel, 천리안 같은 것이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사람 중에서 반 이상은 이런 것을 이용해 보지 못했으리라. 요즘 잡지를 보면 LAN이나 Internet이 다 하는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만 나오면 책을 덮는다. 그럴 필요 없다.

컴퓨터 통신이라는 것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고 신기한 것이다. 한편 이런 것을 상상해보라. 사무실에 있는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집의 컴퓨터를 작동시킬 수 있다. CD를 돌리고 인쇄물을 출력시키고 집에 있는 컴퓨터 화면 미처 보면서 마치 자신 앞의 컴퓨터처럼 다룰 수 있다. LAN이나 Internet이나 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 남의 컴퓨터를 자신의 것처럼 쓸 수 있는 것이다. 마법 같지 않은가. 왜 그리 난리인지 알 것이다.

LAN을 구현하려면 인터페이스 카드의 NOS 그리고 선로만 있으면 되는데 NOS가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다. DOS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 DOS는 Disk Operating System의 약자로 개인 컴퓨터 내의 디스

크를 제어하는 것이고 NOS(Network Operating System)는 네트워크 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것을 제어하는 시스템이다. 예전에는 LAN을 구현하려면 novell netware 같은 전문 NOS프로그램을 사야 했는데 가격이 비싸 소규모 LAN을 설치하는 데에는 부적당했다. 혹시 집안 2대의 컴퓨터가 있는지 모르겠다. 예로 486과 AT가 있다고 하자. 당연히 486에 프린터와 CD 모두 달아 놓았을 것이다. 그러면 출력물을 하려면 혹은 CD를 이용하려면 486에 가서 해야 했는가. 만약 486을 누가 쓰고 있다면, 기다려야 할 것이다. 그러다 CD를 사고 프린터를 사서 AT에 붙일 수는 없는 일, 혹은 486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 이를 이용하려면 또 기다려야 하는가. 또 열 받는 것이다. 그러나 LAN을 설치하면 이런 일은 없다. 486 쓰는 사람은 자신의 작업을 하면 되고 AT사용자는 486 하드디스크를 읽어 AT에서 마치 486의 것을 쓰는 듯이 쓰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프린터 명령을 내리면 486 컴퓨터에 달린 프린터가 작동 할 것이다. 여기서 486을 서버라 하고 AT를 클라이언트라 한다. 486은 자신의 정보와 기능을 제공한 컴퓨터이고 AT는 요구를 했

으므로 위와 같이 부른다. 프린터 한대에 여러 컴퓨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모뎀 또한 모든 것에 달 필요는 없는 것이다.

NOS란 구현된 된다. 소규모의 경우에는 MS DOS로는 어렵다. 요즘은 NOS와 DOS가 통합되어 가는 중인데 싸고 강력한 것으로는 WINDOW NT가 있고 가장 구하기 쉬운 것으로는 NOVELL DOS 7이 있다. 파일의 공유 하드디스크, CD, 프린터의 공유가 가능하다. 전자 우편을 사용하려면 다른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맥에서는 POWER TALK을 이용해 이를 구현해 보았다. 소규모에서는 무리 없을 것이다. 그리고 WINDOW 4.0을 기대해 보아라. 앞으로의 모든 운영체제는 NOS의 기능을 포함해 나올 것이다.

요즘 미국 대학이나 회사는 70%이상 이 이런 네트워크에 연결돼 있다고 한다. 자신의 집 컴퓨터로 학교 교수님 컴퓨터 내용을 볼 수 있고 또는 편지, 영상, 서류 등을 보낼 수 있다. 회사의 경우에는 서류를 올리면 상급자는 전자 사인만 하면 된다.

우리 학교도 요번 년도 안에 이 LAN망을 깔고자 한다. 물론 교수님들에게만 깔

겠지만. 그래도 놀랄지 않은가. LAN에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각 단계 건물에 있는 단말기도 LAN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처리는 중앙 컴퓨터에서 한다. 이 네트워크가 먼 거리 사이에서 이루어지면 WAN(Wide Area Network)이라 부르는 인터넷도 WAN에 포함된다.

여러 회사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내놓았는데 이는 우리 인간 세상에서의 언어를 생각하면 되리라. 한국인은 한국말, 미국인은 영어를 쓰나 우리가 영어를 쓰면 미국인과 대화가 가능하듯 서로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인터페이스 카드를 꽂고 지원 NOS를 설치하면 MAC과 IBM 혹은 다른 PC에도 LAN망 구축이 가능하다.

작년에 마이크로 소프트웨어의 빌게리 이츠가 와서 강연을 했고 이를 들으러 난 리였는데 위의 얘기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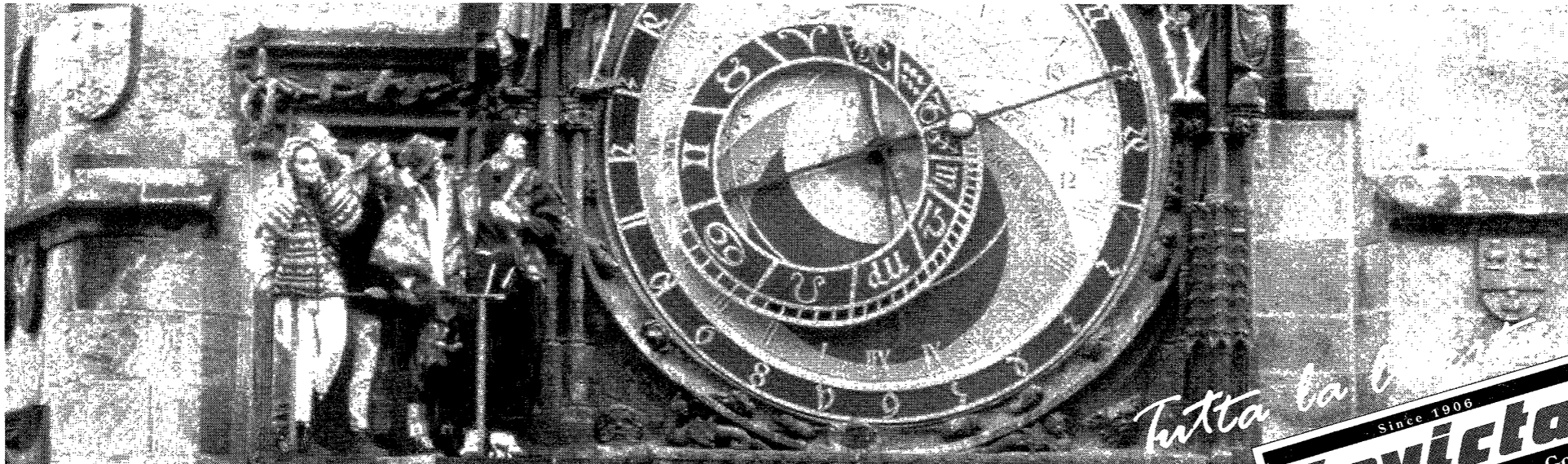
우리는 이런 것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잘만 사용하면 된다. 컴퓨터 말고 달았던 짐치를 펴고 읽어보자. 마지막으로 재미있는 것 하나 가르쳐 주겠다. 집에 전화기가 있는데 컴퓨터는 없고 통신은 사용하고 싶다면 좋은 방법이 있다. 전화번호 가입자 도장 대부분 부모님의 이름으로 되어 있으리라. 신중하게 도장을 가지고 소속 전화국에 가면 공짜로 단말기를 장기 임대해 준다. 2400BPS인데 생각보다 빠르고 우선 모양이 귀엽다. 그리고 나무껍에 있는 우리 ‘백상’도 잘 이용해 주기를

양종호

(자연과학 연구회·공과대 전자공학과)

여행같은 생활을 위하여 -인빅타

‘인빅타’를 입으면 생활이 곧 여행이다.



스스로 새로운 것을 찾고, 절대 자유·절대 젊음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이태리 자유패션 -인빅타. 의류에서부터 가방, 장갑, 벨트, 선그라스 등에 이르기까지 이태리 특유의 예술적 감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Tutta La Liberta(투타 라 리베타)는 완전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매 장 메트로 미도과 백화점5층 / 용인 국제빌딩 지하1층 / 애경백화점2층 / 갤러리(이백백점)3층 ●대리점 개설문의 Tel (02)799-7572~9

42원 이상 구매시에는 문에 나뭇잎 목걸이 용 드림니다



◇백도나 기자

꽃뚱한 냄새가 나는 듯한 세네기라는 소설 들으며 입화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나를 벌써 선배라 부르는 진짜 세네기들이 생겨 버렸다. 더불어 갖게 되는 탈수습이라는 단어가 당당함과 자랑스러움에 앞서 막연한 두려움을 먼저 느끼게 하는 것은 왜일까. 언제부터가 호칭 뒤에 붙여진 '기자'라는 단어가 조금은 익숙해져 수습초의 풀본 기본이 안정되어갈 즈음 탈수습이라는 서늘한 바람이 나를 다시 흔들어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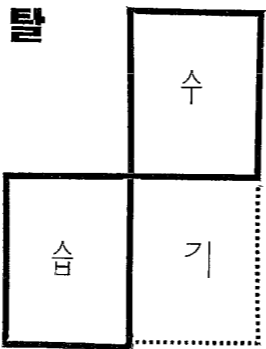
6개월 동안의 번잡스러움과 정신 없이 바빴던 생활... 그래도 수습기 자라는 때가 보호막이 되어 정신적으로 어떤 강한 책임감 같은 것으로부터 약간이나마 자유로울 수 있었던 모양이다.

이제는 더이상 방해할 수 없는 정기자라는 말이 나에게 어떻게 작용하더라도 당당히 설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한다. 비록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제4부라 불리는 언론의 중요성을 짚은 시간이나 피부로 실감했고 다른 3부와는 달리 여론 형성의 근원지가 모호하여 충분히 조작될 수 있다는 허구성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과 방황을 새봄을 맞아 겨울의 두터운 옷을 벗어버리듯 훌훌 털어 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새로운 시작이란 기존의 것을 모두 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다. 아너 오하러 이 모든 것들을 부동체 안은 채 자꾸만 새로운 다짐으로 자신을 재짜질해나가는 과정이라는 편이 맞을 것 같다.

수습이라는 보호막을 걷어내고 그때의 방향을 재짜질 해야겠다.

나의 일부인 신문사로 쏟아지는 시선을 느낀다



이제 말할 수 있다 동국을 책임지고 알리는 학생기자라고

짧고 고된 기간 쌓인 노하우로 뱀파이어와도 인터뷰 할 수 있다.

타의에 의해 떠밀리 온 것만 같다. 뚜렷한 의식없이 호기심 반, 권유 반으로 신문사란 곳에 발을 들여놓았을 때 이미 난 대학생활을 당연한 의무감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여고시절 느꼈던 대학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면서부터 내 삶은 백지화 되었고 내 행동, 사고, 지식까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못했다. 그랬기에 신문사가 반전의 좋은 기회를 가져다 줄거라고 생각했다.

주위 모든 환경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에서 좋은 결과만을 바랄 순 없었지만 난 내 인생을 시간 흐르듯 마냥 내버려 두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뛰었고, 작지만 원래한 꿈을 품게 되었다.

내 조그만 손에 쥐어진 펜의 힘으로 독자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것, 내 기사를 읽는 독자가 있다는 것이 이제는 신문사 생활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모든 어머니가 산고를 겪고 한 생명체를 탄생시키듯이, 많은 시행착오와 극복을 통해 진정한 대학 언론인으로 자리잡을 수 있으리라.

6개월간 쌓았던 무지와 편견을 벗고 이제 정기자란 이름으로 다양한 지식, 폭 넓은 사고, 뛰어난 시각을 소유하고 싶다.

상업적이고 편파적인 기성언론에 물들어 있는 독자를 깨우쳐 이 시



◇송선영 기자

대를 앞서는 독자, 앞서는 기자로 발돋움하는 내 모습을 상상해 본다. 그 만큼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의식이 필요하다.

지금 신문사는 내 육체와 정신의 일부가 되었다. 나에게, 신문사에 쏟아 부어지는 따가운 시선을 인식하며 그들의 진정한 귀와 눈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제 수습의 말을 뱉는다. 출입처에서 선뜻 수습이라 말하지 못했던 마음과 그 동안에 맺었던 좋지 않았던 감정들을 씻어 보낸다.

남몰래 흘렸던 눈물의 의미 만큼이나 좀 더 성숙했으면 한다.

6개월을 뒤로하며 어떤 당찬 모습으로 의결 수 있다. "난 진정한대학 신문기자다"

(자연대 교과과)



◇신형식 기자

기성언론을 소유하며 섬을 쌓고 그들의 제국을 만든 기록자들... 그들 앞에 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대학언론인, 적어도 그 의무와 책임을 편만인 아닌 몸으로 보여주었다. 양과질 벗기듯 내 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너무나 고요함에 두려움도 생기지만 내 의지를 통해 마냥 희망의 푸른빛으로 보려한다.

본격적으로 마이 오른 기자생활, 영화 '그랑부르'에서 본 푸른빛 심연이 내 앞에 펼쳐지는 듯하다. 너무나 고요함에 두려움도 생기지만 내 의지를 통해 마냥 희망의 푸른빛으로 보려한다.

그 푸른바다와 동화되고픈 마음은 막수습을 때버린 해방감과 같은 것일까. 수면위로 박차오르는 힘찬 고래의 몸짓에서 거대한 수면장벽을 깨나가는 자신감을 느낀다.

그동안 기록권을 가지게 된자가 권력유지를 위해 언론을 이용하고 일어서려는 자를 또한 언론을 앞세워 그와 맞서는 언론의 수난과 순환의 역사를 인식하게 됐다. 자신의 권력유지를 위해 막대한 자본으로

(상경대 국제경제학과)

달 하나 천장에 해(解)가 없는 행(行)



작년 가을이었는가? 북한산에 올라 아름다운 경관속에 묻혀 하루를 보낸 적이 있다.

계속 깊숙이 감추고 있는 크고 작은 바위 위에 '단'자와 '수'자를 비롯해서 X X 라는 이름들이 선각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

엿새 보던 별처럼 어둠이 짙어졌지만 마치 남북의 청량한 프로에서 본 금강산의 바위 위를 연상 시킬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다.

극히 일부 등산객이나 신도들의 왜곡된 행위로만 생각하기에는 지나친 느낌이 든다. 이 아름다운 산하가 이런 식으로 파괴된다면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남겨줄까. 오랜 옛날부터 선각은 종교와 깊은 연관이 있어 왔다. 불교가 성립할때는 인도나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해지면서 많은 절이 생기게 되었고 그 속에 많은 대소 불상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탐이 생기고 그림이 그려졌으며 절 주변이나 계곡의 큰 바위에 선각으로 된 불상이 많이 생겨났다. 또 주변의 환경을 성스럽고 아름답게 하기 위하여 온갖 정성을 기울여 왔음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오늘날처럼 계곡을 훼손하여 자연을 망쳐 놓는 일은 결코 없었다.

아름다운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데 없고 추한 물골을 하고 있는 바위와 쓰레기로 대부분의 계곡은 훼손되고 있다.

어떤 바위의 '수'자는 '단'자로 고쳐져 있고 '단'자는 심지어 풀의 획을 쫓아내서 '수'자로 고쳐 놓은것도 볼 수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단'자나 '수'자 모두 전 세계가 사용하는 앞에 종교를 상징한 그림문자가 아닌가. 이런 행위가 바로 해행일여(解行一如)에 대한 신(信)이 없는 사람들의 행(行)일 것이다. 행이 없는해는 공허할 뿐이고 해가 따르지 않는 행은 맹목적인 행일뿐이라는 것을 모른단 말일까 그런데 거기에서 재미 있는 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다.

'단'자를 '수'자로 바꾸어 놓은것은 획을 고쳐놓는것이 쉽게 눈에 띄지만 '수'자를 '단'자로 고쳐놓은것은 획을 더한 흔적이 없이 감쪽같은을 알 수 있다.

두 문자가 갖고 있는 특별한 획이나 형(形) 때문이었지만 거기서 무엇인가를 느끼고 생각하게 된다. '단'자가 갖고있는 자비, 아량, 포용력이 아닐까 비유해 본다. 무턱대고 바위에 새기는 그런 행보다 진실로 중생을 제도한 부처의 위대한 삶을 배울때이다. '단'자가 갖고있는 길상 만덕(吉祥萬德)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겨 우리모두 아름다운 환경과 마음을 위해서 청정한 행을 행하여 볼때이다. 늦다고 생각할때가 빠른것이니까.

(자연대 교과과)

◇눈길을 끄는 책 '운동권 마누라'

요즘 술자리에서 학생들의 안주거리로 오르내리는 말이 있다. "자작하런 운동권 마누라 언저리다".

이말을 듣고 한뼉쯤은 "왜?"라는 질문부터 '운동권'이 뭔지 그리고 '운동권 마누라'는 또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며 웃어넘기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실제로 '운동권'이라는 말은 80년대 초반 당시 안기부의 지시에 따라 한 신문에 연재된 '대화기의 음영'이라는 글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88학번인 김형민씨가 쓴 이 책 '운동권 마누라'는 지열했던 80년대와 90년대 초에 학교를 다니면서, 집회에 참여해 화염병을 던지던 시절을 되새기며 쓴 '운동권'이라는 단어를, 한 비평가의 말에 의하면 '뜻뜻한 살냄새가 풍기는' 글로 옮겨놓았다.

'운동권 마누라'의 한대목을 옮겨본다. "안암에서 풀을 제일로 잘 캐는 여자. 지랄타가스 말뚝 심폐량 가능하는 여자. 웃을 때 입기리지 않는 여자. 말을 진지하게 하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여자. 재미없는 이야기라도 깔깔 웃어주는데 인색하지 않지만, 논리 없는 강변에는 거침없이 따지고 드는 여자... 그러니까 그 때 유령하던 노래 '희망 사항'이 내가 상상하던 운동권 여자의 이상형을 붙인 것인데..."

(이유리 기자)

버팔로와 함께하는 자연의 재발견-① 삼진강

도타캐션의 名家

Buffalo

나루터 장꾼의 흥겨운 가락따라 동과 서를 어우르는 너, 삼진강이여.

지리산의 협곡을 흘러 흘러 동으로 경남 하동을, 서편엔 전남 광양을 끼고 남해와 만나는 물줄기, 삼진강.

물길 건너 화계정에서 경이 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절편한 전라도 사투리와 드센 경상도 사투리의 장꾼들이 탁배기에 넘실거리는 술을 나누며, 한교을 사람이 되는 곳 - 여기에 동과 서를 가를 수 있는 것때가 어디 있느냐.

이 아름다운 삼천리 산하를 남과 북으로 가르고, 또 다시 동과 서로 나누는 좁은 마음을 그려나 삼진강은 맞지 않는다.

그저 동과 서를 어우르며, 천년 만년 변함없는 물결처럼 앞으로도 무궁하게 "우리는 하나일 뿐, 우리는 한 교을 이웃일 뿐"이라 속삭이고 있다.

세상의 온갖 투쟁, 질사와 반목이 녹아 온이 비는처럼 투명한 순수의 자연으로 돌아오는 곳 - 화해의 물줄기, 너 삼진강이여.

자연에 향한 젊음의 발걸음, 버팔로가 함께 합니다.

'백상의 집' 새 입주 선정키로 4월중 입찰...내년 공사후 5월경 개장

박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 = 김진환·정치외교학 이하 공관위)는 지난 17일 열린 운영위원회의에서 '백상의 집' 관리운영계획안을 제출했다.

공관위는 그동안 공간확보와 중입원의 위생상태 불량, 용수를 제작과정 및 보관상태 불량과 10%할인을 문제, 종사원의 친절도가 떨어지는 등의 서비스 불량 개선방안으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 새로운 입주자를 선정키로 했다. 입찰 시기는 오는 4월중이고 개장일은 내년 5월15일경이다.

또한 협소한 공간확장과 주방및 홀내부 공사를 내년 4월10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다. 공사에서는 주방과 차고너를 통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배식대와 주차대를 분리하며 아울러 주방공간에 맞는 배

뉴수를 책정하여 관리운영할 방안이다.

새 입주 입찰후 백상의 집 관리방안으로는 매장운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카드 작성, 모니터 요일의 적극적 활용, 영양사를 통한 음식질 및 영양평가등을 계획중이다

타매장 운영시간 조정

'백상의 집' 주방 및 홀내부 공사와 입찰을 위해 타매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한다. 다량관 학생식당은 현 운영시간에서 평일만 1시간을 연장해 10시부터 오후7시까지 개점하고 보리수는 평일 1시30분을 연장하여 8시30분부터 오후8시까지, 토요일은 8시30분부터 오후6시까지 연장운영한다.

야충, 비상대책위원회 발족 신설학과 자치공간 확보운동 전개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황인규·영문3)는 지난 7일 총운위를 통해 공간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논의, 지난 10일에 '광고, 중문, 신방 학생자치기구 공간 확보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김민수·경제3)'를 발족했다.

각과 1인과 야간강좌 정부학생회장으로 이루어진 비례위는 오늘(22일) 선포식을 가진다.

학생회장 황인규군은 "신설학과에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당면한 문제가 학생회실"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 발족의 이유를 설명했다.

야충·사범대·경상대 해오름식

영화제 연극잔치 문화공연 등 행사 다양

경상대

제27대 경상대 학생회(회장=서동욱·무예4)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 '경상대 하나되기'와 '통일원년을 맞이하여 민족 대단결로 물결쳐 나가자'라는 기조아래 해오름 마당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해오름 마당에서는 △새내기(28일)=새내기 농구대잔치 △여학우의 날(28일)=대면식, 교양과 간단한 문화공연 △삼산의 날(29일)=예비예 측구대해 △해오름식(29일)=고사, 내빈소개, 새내기 뽀내기 한마당, 문화공연 등이 치러진다.

특히 여학우의 날에는 '여성은 과연 차별받고 있는가?'라는 대주제 아래 각 과별로 소주제 하나씩을 발표,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 많은 여학우의 참여가 기대된다.

이번 행사에 대해 경상대 문화부

장 주태영(경제3)군은 "이전의 새내기 중심의 사업에서 벗어나 여학생과 예비역들에게도 중점을 맞춰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가 되도록 할 것"이라 말했다.

사범대

제27대 사범대학학생회(회장=김현중·국고 4)는 해오름마당을 오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실시한다.

구체적 일정을 살펴보면 첫째날(27일)은 3시에 중앙당에 모여서 새내기 연극잔치를 벌이고 둘째날(28일)은 4시30분 학림관 앞에서 해오름고사를 지내며 둘째날 인도로 중앙당에 입장해서 회장단 소개등의 해오름마당 본 행사를 행한다. 그 이후 만해광장에서 대동마당과 뽀놀이를 실시할 예정이다.

야간강좌

제11대 야간강좌 총학생회(회장

대의원장 선거 마무리

사회대·공대... 출마자 부재로 연기

각 단대 대의원장 선거가 마무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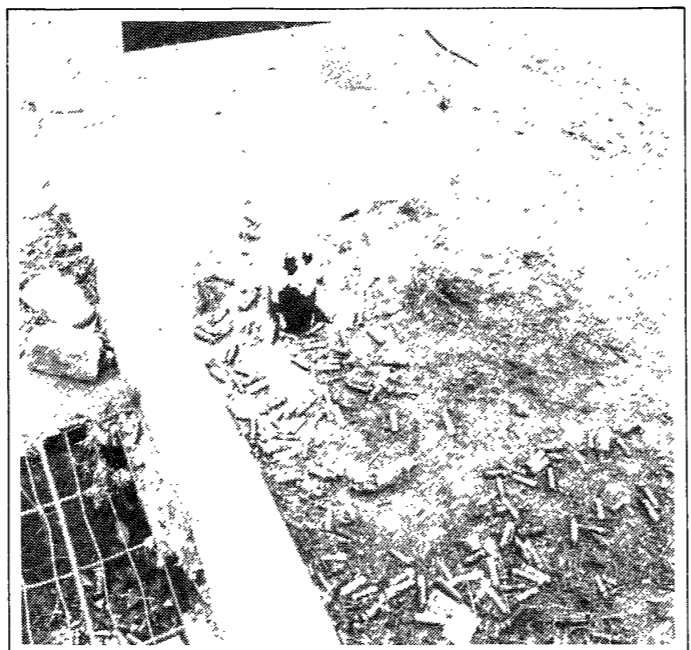
지난 14일 사범대와 불교대를 시작으로 17일까지 진행된 선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사범대=엄정식(수교4) △불교대=이상명(법교4) △경상대=조용건(정보관리4) △이과대=최이선(통계3) △예체대=이우원(연영4)

사회대와 공과대는 출마자 부재로 인해 선거 일정이 연기되었다.

연기된 일정은 △공과=22일 △후보자 등록마감=24일 △공보=27일 △단과대 대의원 총회=29~30일이다.

한편, 총학생회가 주최한 새로 배운터 특별 집사는 오는 25일로 연기됐다.



수거해서 뭐하게요?... 학생회관과 공대농구장 사이에 비쳐진 건전지 수거함의 비석이 들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바닥에 쌓인 건전지의 양으로 보아 상당기간 방치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백도나 기자)

불교대학원 특별강연

불교대학원(원장=목정배·불교학)은 오는 28일 오후 5시20분 중국관(L401)에서 '21세기에 있어서 불교의 역할'이란 주제를 가지고 송석구총장을 연사로 특별강연을 실시한다.

교육실습생 오리엔테이션

사범대(회장=김현규·교육학)는 '95학년도 교육실습생 오리엔테이션'을 오는 27일 오후5시에 교육실습신청자를 대상으로 학림관 소강당에서 실시한다.

또한, 교육실습 협력학교 대표학생 예비소집이 오는 28일 사범대교과실에서 있을 예정이며 교육실습생 전원은 28일부터 4월1일까지 실습학교를 방문하여 교육실습에 관한 사전지도 및 협의를 가진다.

직원노조 1차 단체교섭

학교당국과 서울캠퍼스 직원노조(위원장=김윤길·1백주년기념사업본부)는 지난 16일 교무위원회의실에서 제1차임금협상 및 단체교섭을 실시했다.

이번 교섭은 상견례와 노조의견 설명으로 간단히 진행됐으며 오는 24일 2차 교섭을 이룰 예정이다.

학생수첩 28일 배포

학생복지위원회(위원장=이승현·산교4)는 오는 28일 학생수첩을 배포한다.

작업중 생긴 문제로 배포시기가 미루어졌으나 지난 18일 인화작업을 끝내고 인쇄와 제책작업만을 남겨놓고 있다.

컴퓨터 특판

박지사업 공동관리위원회(위원장=김진환·정치외교학)는 '95년도 컴퓨터 판매 특판 및 임대차 기본계획안'을 작성했다.

이번 특판은 신입생을 주 대상으로 전문제조업체 및 조립업체의 물품을 동시에 판매하여 가격대비성능 및 품질을 비교·검토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공관위는 이번 특판기간 동안의 A/S처리 능력 등 경쟁업체의 제반능력을 비교 검토하여 컴퓨터매장의 임대차계약체결의 기본자료로 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판기간은 오는 27일부터 4월7일까지로 토요일은 제외하며 도서관 앞에서 실시한다. 특판의뢰 등으로 참여하는 업체는 삼보컴퓨터, 고려컴퓨터, 한계컴퓨터, NEW-TEC이다.

판매물품은 현재 참여업체의 기존 판매가격의 10%이상 할인되는 가격으로 판매함을 원칙으로 H/W, 기타 주변기기 및 소프트웨어, S/W는 참여업체가 공급 가능한 전제품으로 현 S/W유통시장의 할인된 가격 이하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특판기간중 구매할 물품의 예프터 서비스는 1년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학과소식

사학과

제86차 춘계정기대사찰 경주일대에서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실시한다.

주제보다는 유물·유적의 흐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는 이번 대사의 전체세미나는 지난 21일 있었다.

산업공학과

조입교수 연구실에서 지낸 연구원생을 모집한다.

자격은 학부생으로 94.95학년에 한하며 남학생일 경우 졸업때까지 군인대를 하지 않을 사람을 필요로 한다.

연구원생은 학과나 전공에 대한 배운외에도 컴퓨터, 외국어를 배울 수 있다.

지리교육과

'95학년도 춘계 정기 학술대사를 실시한다. 대사일정은 △1학년=4월 2~3일 서울·경기도 일대 △2학년=오는 28일에서 30일 충청도 일대 △3학년=28일부터 30일까지 경상도 일대이다.

역사교육과

내일(23일)부터 25일까지 2박3일간 강원도 일대로 대사를 한다.

학전무대

장식용 학생수첩

○...학생수첩은 언제 나올려나...
개강한지 한달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학생수첩이 나오지 않아 많은 학생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는데.
학생수첩에 의하면 학생수첩은 4월초쯤에 나오나 나오고, 이에 많은 다른 학우처럼 수첩을 구입한 학우 의문의 한마디 "학생수첩은 전사용?"

식판=견관(?)

○...식기 퇴식기가 두군데 가요?이말이 요즘 다량관 식당을 찾는 학우들의 공통된 의문사한 이라는데.
다량관 식당에서 식판 세척상태가 매우 불량해서 그러한 식판을 따로 빼어놓은 것이 쌓여서 퇴식구멍고도 지저분한 식판을 쓰는 곳이 한군데 더 생겼다고.
이를 본 한 학우 왈 "식판=견(犬)판(?)"

적과의 동침

○...김영삼 대통령의 힘은 권력 투쟁, 대통령 취임 뒤들을 맞이한 김대통령,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 귀엔 어둠의 베일이 가려져 있어.
다름아니라 지난해 4월 이회창 당시 국무총리 해임으로 시작해 현재 지지세력문제에 이르기까지 여권내 분란이 계속되어 권력 투쟁 현상까지 야기돼.

이에 한 학우 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란 데 이제 아픈게 아니라 손가락이 읊은건 아닌지"

손가락의 진실(?)

○...믿고 찾기에 너무 먼 당신, 그 이름은 경찰(가)
경찰의외의 사살사건, 뇌물받은 경찰들의 연이은 구속, 경찰의 범인조각, 은폐가행행위에 이어 경관승진시험 답안유출사건이 나타났음에도 경찰측은 사건 수사에 단호한 조치보다 시범수거과정을 줄이기에 더 열을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데.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과거 범죄와의 전쟁에서 진 이유, 바로 적과의 동침(때때로는 아닌지)..."

◆본교 교환학생 현황

비공개적 선발·높은학비...관심저조 기숙사·외국어교육문제 해결이 관건

일본의 교환학생 3명이 국제부(부장=이원부·정보관리학)의 관할아래 본교에서 활동하게 됐다. 이번에 실시하는 일본의 교환학생 교류는 1년 코스로 이번이 3회째를 맞는다.

이제까지의 교환학생은 전체학생을 의식하지 않고 일부학생만을 겨냥하여 비공개적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관심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추세와 새로 취임한 송총장의 활발한 해외활동 계획에 따라 해외연수도 학생들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라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본교의 이제까지의 교환학생 현황을 보면 5년전부터 있었던 일본과의 학생교류는 불교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로 매년 2명씩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일본과의 교류는 일본의 물가등을 고려해볼 때 더 이상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듯 하다. 중국과는 주로 중국의 외화수입 차원에서 학생 교류가 이루어졌는데 개인적

으로 한 학기당 1백20만원의 학비가 들었다.

현재까지는 해외연수를 가는 대부분은 석박사학위 과정을 이수하기 위한 학생들이었고 교류를 하던 네개학교중 현재 교류가 끊어진 한개 학교를 제외하고 2개 학교가 학위과정 이수 코스였다. 이런 학위과정 이수를 위해서 보다는 학업위주의 주로 저학년 학생들의 활발한 해외연수를 위해 학교측에서는 학점인정제를 금년에 이루어질 해외연수에서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해외연수를 하기위해서 휴학을 해야했지만 학점인정제가 도입되면 휴학을 하지 않아도 되며 연수기간중 취득한 학점도 인정받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1.2명이던 교환학생의 수를 10명 단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숙사 확보문제와 학생들의 외국어 교육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원 공모

본 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원을 공모합니다.

- 다 음
1. 자격:불교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수료자 이상
 2. 인원:2명
 3. 구비서류:①주민등록등본 1매
②이력서(연구업적 포함)1매
③최종학력 증명서(박사학위 소지자 학위증 사본 첨부) 1매
④연구업적물:최근 5년(90년 1월1일 이후)논문, 저서, 번역서
⑤연구계획서:매수제한없음
 4. 서류제출일시:1995년3월30일 5시까지
 5. 접수처: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6.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면, 연구원으로 선임된 자는 개별통지함.

불교문화연구원장

수강신청 최종확인 안내

'95학년도 제1학기 수강신청 최종확인 기간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니 수강신청의 이상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확인기간:'95.3.24(금) 1일간
2. 확인장소:소속대학교 학과 및 학과
3. 유의사항:
1)수강신청 과목의 임의변경(취소, 추가)은 절대 불가함.
2)전산처리 오류, 분반, 폐강으로 인한 강좌변경등의 부득이한 경우만 정정가능함.
3)정정사항은 수강정정자료(양식)에 기재하여 해당교과과에 제출함.
4)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과과에 문의하기 바람.

교무처장

'95학군사관후보생 모집

1. 모집인원:○○명
2. 지원자격:4년제 대학2학년 재학생(72.1.1~78.1.1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95.3.13~4.10
-장소:학군단
-구비서류
·지원서(사진첨부)및 서약서 각 1부
·1학년 성적증명서 1부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각 1부
·칼라사진(4×5cm) 4매
4. 선발절차
-1차: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신체검사, 신원조회
5. 합격자 발표:'95. 12. 8
6. 특전
-무시험 선발
-소위 임관, 중위 전역 또는 부무연장, 장기복무
-의무 복무 기간:2년 4개월(장교중 최단기)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7. 문의처:동국대 학군단(TEL:260-3537, 3538)

제112 학생군사 교육단장

'95군장학생(전반기)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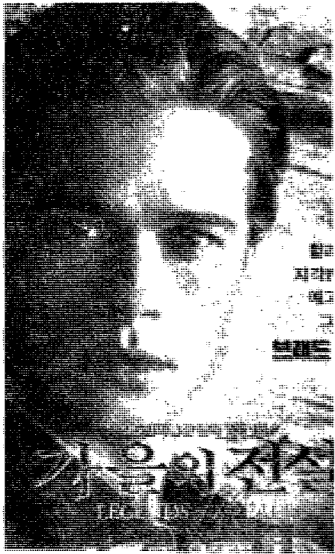
1. 모집인원:1학년(○○명), 2학년(○○명), 3학년(○○명)
2. 지원자격:4년제 대학
1학년(73.1.1~79.1.1출생자)
2학년(72.1.1~78.1.1출생자)
3학년(71.1.1~77.1.1출생자)
3. 지원서 교부 및 접수
-기간:'95.3.13~4.30
-장소:학군단
-구비서류
·지원서(사진첨부)및 서약서 각 1부
·전학년 성적증명서 1부(1학년 제외)
·부무연장 및 장기 복무지원서 1부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 등본 각1부
·재정보증서, 납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칼라사진(4×5cm)4매
4. 선발절차
-1차:서류전형(입학 및 대학성적), 면접, 체력검정
-2차:신체검사, 신원조회
5. 합격자 발표:'95.8.10
6. 특전
-학군사관 지원시 가점 부여, 선발시 우대(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자동 선발)
-대학 졸업시까지 등록금 학습보조비 지급
-희망 및 전공학과 고려 병과분류 보직활용
-전역시 직업보도 실시(대기업체 우대선발 및 처우)
7. 문의처:동국대 학군단(TEL:260-3537, 3538)

제112 학생군사교육단장

영학의 패러독스

에드워드 즈윅 감독 '가을의 전설'

가을... 인물의 몰락과정 내포
부패한 사회를 '몰락'으로 표현
미국역사 거꾸로 볼수 있어야



정재형 (예술대연영과 교수 영화평론가)

에드워드 즈윅 감독의 '가을의 전설'은 원래가 갖고있는 두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원래대로 한다면 '가을 혹은 몰락'에 관한 여러개의 이야기(Legends of the Fall)를 꿰는 것이다. 주인공이 가을에 태어나서 가을에 죽으므로 가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한 한 인간, 한 가정 혹은 여러명의 인물들이 몰락하는 과정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다. 이 영화는 1880년대말부터 1960년대까지의 미국 역사를 보여준다. 감독은 미국이 자국의 부를 성취해 나가면서 동시에 제국주의적 속성을 확고히 해나간다는 문명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나간다. 감독이 이야기의 초점을 '몰락'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 나간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표면상 미국은 강하게 성장해가지만, 내면적으로는 부패하고 몰락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이다. 이 영화속에는 여러개의 몰락이 그려져 있다. 서부 개척사의 이면으로 인디언의 몰락과 미국의 지성인들이 소유한 소수의 양심의 몰락과 개인들의 광기와 야심으로 인한 가족사의 붕괴가 그것이다. 이야기의 중심은 삼형제의 중간인 트리스탄(브래드피트)에 의해 서술되며, 이 가정에 시집온 수잔이라는 여자와 삼형제간의 갈등, 미국 정부와 인디언을 옹호하는 이 가정간의 대립으로 전개된다. 영화적으로 볼때 '가을의 전설'은 그동안 봐왔던 할리우드 영화의 여러 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분노에 대한 복수주의, 한 여자에 대한 집요한 애정추구, 주인공의 영웅적 활극, 장대한 감성적, 서사적 오락성 등이 그것이다. 미국에 있어서 새롭게 역사를 해석하고자 하는 분위기는 그대로 오락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한다. 지배적인 보수관념의 해체는 그 자체 흥미의 대상이기도 한 것이다. 할리우드의 공식대로라면 오락은 그저 오락일 뿐인 것이다. 또한 이 영화에서 다루는 미국의 역사는 우리에겐 여전히 낯설뿐 그리 호들갑을 떨 그런 대상도 아닌 것이다. 단지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역사극을 통해 우리는 우리 현실을 되돌아볼 기회를 갖는다. 오락영화로만 그칠수도 있는 할리우드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미국을 그저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나온 여암적 현실을 뒤바꿔 관조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면, 그런 미국영화를 거꾸로 뒤집어 읽을 수 있는 하나의 자제가 될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학 문화

①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문화

'학우들이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대학문화의 공동화(空洞化)를 걱정하며 힘들어하던 한 학생회 일꾼의 푸념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1). 이것 역시 정권과 제도인론의 부추김일 뿐이다. 대학이 대학답게 제자리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인 민족대학건설 그것과 맥을 같이하는 대학문화건설. 모두 함께 하는 명확한 대안제시를 위해 칼럼을 신선했다.

첫번째, 모르는 사이 아주 쉽게 휩쓸려 버렸던 포스트모더니즘적 사상문화를 비판해본다. 지난해 대학생을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문화상품으로 까지 선정됐던 최영미의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라는 허무주의적 사고를 잘 그려내고 있다.

그의 시 '서른, 잔치는 끝났다'는 운풍, 술, 운풍가, 술마시는 분위기 등의 언어를 통해 대중의 일반적 정서를 호소하면서도 "그러나 대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는 맺음으로 시적언어의 무의미한 유희정도에 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

사회전반을 풍미하는 이런 식의 포스트모더니즘 논리는 정권이나 제도인론에 의해, 통일이 되어도 민족의 이익을 꾀하는 부분이 있다. 또는 모든 부정적인 것에도 긍정적일 부분이 있으므로 제국주의문화도 대중들이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대학내에 침투해 있다.

또 모든 것을 본질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없으며, 모든 것이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고 무엇이든 자신의 기쁨만 찾으면 된다는 논리를 신세대, X세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기도 했다. '도대체 이런 문제제기가 왜 필요한가'라는 질문을 이 글을 읽는 독자에게 던져본다. (문화부)

◆부처탄생지 룸비니에 세워지는 한국절

룸비니 복원에
한국불교도 동참하는
의사표시 될듯

홍광표
(자연대 조경학과 교수)

지난 2월 27일 네팔의 수도 카투만두(Kathmandu)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大覺會) 대성사(大聖寺)측과 룸비니 개발위원회(Lumbini Development Trust)측간에 네팔 룸비니의 국제사원구역을 건설할 예정인 한국사찰건설을 부지의 임대차계약과 조인식이 있었다.

이 국제적인 행사는 네팔은 물론 지금까지 룸비니의 복원과 개발에 애정을 가지고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던 세계 여러나라의 불교 관계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해주었으며, 뉴스의 초점으로 등장하였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각회 대성사는 룸비니 개발위원회측과 19번째로 부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사찰이 임지하게 될 부지는 바로 국제사원구역을 서측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규모는 160m×160m(2만5천5백㎡, 7천7백58평)로서 중국, 일본사찰이 건설될 부지와 더불어 국제사원구역에서 가장 큰 규모에 속하며, 입지적으로 룸비니 아쇼카 석주가 있는 성원과도 가장 가까운 지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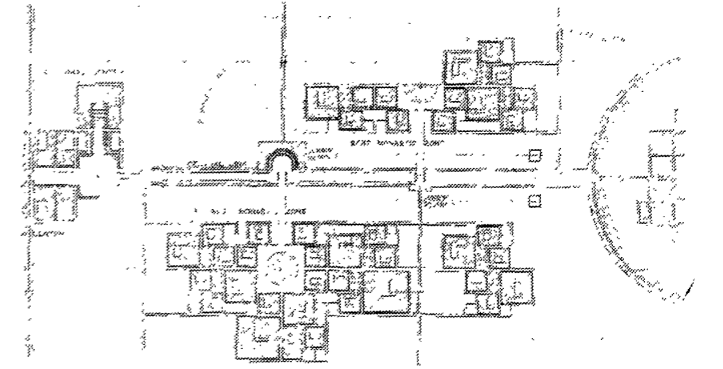
이제 룸비니 국제사원구역을 서측면에 건설된 한국사찰은 사찰건설을 부지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기본설계가 일단됨으로써 사실상 공사준비가 완료된 셈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기공식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룸비니 한국사찰건설에 내재된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것은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었다.

첫째, 룸비니는 불·불·승 삼보에 귀의한 세계의 모든 불교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고, 그 가르침

에 따라 더욱 신실하게 정진함으로써 인류의 평화와 사랑을 종교적 관점에서 실현시켜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계획되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세계불교의 중심지로 자리잡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룸비니에 한국사찰을 건설한다는 것은 곧 한국의 불교인들도 룸비니의 복원 및 개발정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는 구체적인 의사표시로 생각할 수 있었다.

둘째, 남방불교가 근본불교라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불교는 열매불교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불교가 가진 본래 면목을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러므로 룸비니 한국사찰은 한국불교의 정신 및 종교적 수준을 전세계 불교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 및 포교의 장(場)으로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의 불교인들과 만나 한국불교의 높은 수준을 전달하고 다른 나라의 불교가 가진 내용을 수용함으로써 세계 불교의 발전은 물론 한국불교가 보다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는 불교의 전래와 더불어 이루어진 불교문화의 바탕 위에서 형성되었다. 특히, 조영문화의 경우 그 영향의 폭



부처의 탄생지인 네팔 룸비니에 세워질 한국사찰은 그 규모가 7천7백58평에 이르며, 아쇼카 석주가 있는 성원과도 가장 가깝다. 이 글은 사찰을 직접 설계한 홍광표교수가 썼다.

은 실로 지대하여 우리나라 조형문화의 융성 및 발전은 불교조형문화의 변화·발전과정과 그 궤를 같이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따라서 룸비니에 건설되는 한국사찰은 곧 한국조형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하나의 척도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룸비니 한국사찰건설의 성패는 결정적으로 경제력에 의해서 좌우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룸비니에 한국사찰이 건설될 경우 그 결과는 다름아닌 한국의 경제수준에 대한 지표로서 작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룸비니의 한국사찰건설에 내재된 이상에서 살펴본 몇가지 의미로 비추어 볼때, 룸비니에 한국사찰을 건설하고자 하는 목표는 비단 불교인들끼리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이며,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 의해서 달성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룸비니에 한국사찰을 건설하는 사업은 엄청난 예산을 필요로 하는 대작 불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한국사찰건설이 원만하게 회향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등장하리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 방대한 불사는 한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불교인들은 룸비니에 한국사찰을 반드시 건설하여 한국불교계의 위상을 높여야 되겠다는 대원(大願)을 세워야 할 것이며, 보리심(菩提心)을 가지고 온 정성을 모아 룸비니 한국사찰건설에 동참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이 룸비니 한국사찰건설은 중단 차원에서 주도적으로 건설에 참여해야 될 것이며, 별도의 지원대책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되리라 생각된다.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의 정책적 관심과 재정적 지원 역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다른 경우와는 달리 룸비니 한국사찰건설은 국제적인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하게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아닐 수 없다. 만약 룸비니에 건립하겠다고 약속한 한국사찰건설이 목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불교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국제적 신뢰도는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결국 한국사찰이 계획대로 원만하게 건설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전 불교인이 종파와 계파를 초월하여 화합하고 하나로 결집되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될 때에만 비로소 한국사찰건설은 원만 회향될 수 있을 것이다.

메아리

선비정신

▲자신이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비판하지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 현 기성언론이, 정치인들의 현실이 그러한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청렴·결백을 자기 자신의 목숨만큼 중히 여겨 살아왔다. 그 선비정신은 다만 존경을 받기위함이 아닌 뜻이 말할 수 있는 자기자신의 정립과정일 것이다. ▲태평양 전쟁이 자유전쟁이라고 말한 오쿠노 세이스케 의원의 망언에 대해 또 다시 동아시아 나라들이 발원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들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일본의 망언 역사를 살펴보면 1953년 구보타 강이찌로 한일회담 수석대표의 "36년 간의 일본의 조선통치는 한국인에게 유익했다"는 망언을 시작으로 최근 1994년 나가노 시게오 법무장관의 "아시아에서의 일본전쟁은 침략전쟁이 아니며, 중국전쟁 중 남경에서의 일본의

중국인 대학살이라는 것도 날조된 것이다"까지 수십년에 걸쳐 매년 국가간에 정치문제로 되었던 것들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 사회에서는 일본을 규탄하며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이번에도 오쿠노발언에 대한 반대추구를 결의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아무 일장도 표명하고 있지않는 상태이다. 여기

서 정부의 입장표명, 일본의 공식 사과에만 그치고 마는 우리사회를 돌아보자. 올해로 우리나라는 광복50년을 맞이하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참사는 어느정도 되었는가. 남한경찰인적구성을 보면 1960년 총경70%, 경감40%가 일제강령을 가진 사람들과이다. 그러면 지금의 고위경찰직의 사람들은 어떤 인물일까. 한 예를 든 것이다. ▲일본의 전쟁사죄 및 부전결의에 반대하는 일본의원총 한일의원연맹 소속이 76%를 차지하는 현실, 군국부활 캠페인이 극성인 지금의 일본 앞에서 정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진,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 지금의 국가가 일본에 대해 무엇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의 현실에서 우리들은 조선시대 선비정신인 청렴·결백, 그리고 의리정신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때인것 같다. (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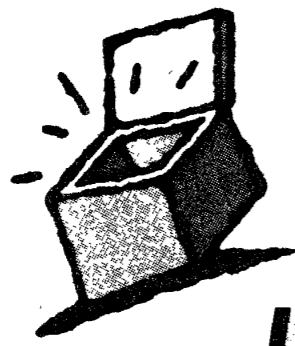


서승현 (6)



나기 경험한 LG

①인턴사원 백진규편



LG는 있다



LG에서 인턴생활을 하기 전까지 내가 갖고있던 LG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리면 사실 '보수적', '인간적'과 같은 단어들만 연상되었다. 그러나 짧은 인턴생활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혁신적', '역동적'이라는 단어들만 먼저 떠오르게 된다. 특히 내가 LG 전자에 근무하던 2주 동안은 럭키금성에서 LG로 그룹의 로고가 바뀐다는 자유 출퇴근제의 도입 등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회사를 술렁이게 하고 있었다. 사실 신세대가 맨날 있는 사원에게까지 전달되어 운영되지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명령이 죽고 산다는 군대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전달되어서 제대로 실행되려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LG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그 범위와 속도도 볼 때 다른 기업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LG는 그동안 7년이상 지속된 변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고통을 경험했다. 경영혁신을 제일 먼저 외친 것도 LG였고, 고객의 중요성을 제일 먼저 역설한 것도 LG였다. 긴 시련의 시절이 있었기에 그들은 변화와 혁신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을 갖추고 있었으며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변화할 수 있는가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LG로 새롭게 출발하며 제2의 혁신을 외치는 그들에게는 분명 구호만이 아닌 진정한 도약을 위한 강한 자신감이 넘쳐 흐르고 있었다. 분명히 'LG는 있다' - 그들의 활기찬 행동과 눈빛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백진규 (고려대학교 전자공학과 4년) (95 LG전자 동계인턴사원)

